

## 서평

---

### 세상의 이치를 읽는 방법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창비, 2017)

김묵한\*



단편을 좋아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단편선을 좋아한다고 해야겠군요. 장편이라 할지라도 장별로 완결된 구조가 있는 책이 더 끌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만 읽어야 하는 책은 읽기가 어렵더군요. 어찌면 큰 이야기를 읽는 데는 긴 시간이, 혹은 긴 호흡이 필요한 데, 그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타고난 산만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돌아보면 끊어진 호흡만큼 기억하는 책 내용에도, 그 책에 대한 이해에도 단층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긴 장편보다는 잘 선별되고 정리된, 개별 단편이 완결된 구조를 가진 단편선이라는 형식 자체에 애정이 있습니다.

---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hookman@si.re.kr)

웬 똥똥지같은 말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리뷰 청탁을 받고 들여다보니 데이비드 하비의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이 바로 그런 책이더라는 겁니다. 작가가 자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단편을 골라 하나하나 논평을 붙여놓은. 이 책의 원제는 “The Way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훨씬 더 야심찬 제목이지만 이건 시점의 차이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하비가) 풀어놓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들) 혹은 단편(들)을 모아놓았다는 의미니 말이지요. 해서 독본, 논문집이라는 딱딱한 명칭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할 텐데, 이 리뷰에서는 이런 명칭 대신에 단편선이라는 말을 써볼까 합니다. 하비의 단편선 소개글인 게지요.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한 작가의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단편선을 찾는 독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의 명성은 들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아직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신 적은 없고 이 단편선으로 작가를 처음 만나시는 독자들이 있으실 테고요. 작가의 작품을 좀 들쳐봐서 익숙하시기는 하신 데 이번 기회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번 개관해보시겠다 하시는 독자들이 또 있으실 테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작품을 이미 다 섭렵하신 열혈 독자들 도 계실 겁니다. 이런 유형의 독자들에게 이 책은 같기 보다는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가기에 십상이겠죠.

하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악명이 자자한 하비의 다양한 관심사와 얹지만은 않은 책 두께에 기가 질렸던 예비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단편선 자체도 여전히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르는 두꺼운 책이라는 함정이 있죠. 그렇지만 이 책은 어찌되었건 한 권이니깐요. 그리고 단편 하나하나가 완결성을 갖춘 구조이니 요령껏 끊어 읽는 기술적인 독법을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비 독자들에게 꼭 친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비의 책 중 이런 형식의 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이왕 도전해보기에는 그나마 장애물이 적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런 단편선 혹은 독본 형식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의 독서가 필요하다면 같은 번역가가 해설한 짧지만 충실한 해설서인 『데이비드 하비』(2016)가 그리 무겁지 않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책은 단편선이라기보다는 해설서와 짝을 이루어 해설의 내용을 째째이 찾아보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원문을 모아놓은 독본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보신 대부분의 독자들은 하비의 저작을 예전에 몇 번은 접해보신 유형이 아닐까 기늬해봅니다. 띄엄띄엄이든 종종이든, 한두 권만 읽었던 아니면 전체에서 한두 권만큼만 빼먹었던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말입니다. 이런 독자들에게 있어 이 단편선은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간 하비의 사상적 여정을 압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지도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편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맛도 있겠지만, 이 유형의 독자들은 발표된 순서대로 수록된 단편간의 흐름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단편들이 원래 실렸던 저널과 책을 정리한 부록에서 다음에 찾아볼 거리들을 찾아보는 데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싶습니다. 원본 지도를 참고삼아 이미 맞춘 퍼즐 판에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끼워 맞춰가는 느낌과 비슷할까요.

하비는 다산 작가입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점은 그럼에도 하비의 작업을 관통하는 무게중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비는 자본주의 도시화의 특성을 밝히는 데 천착하며, 과잉축적의 문제가 도시화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들을 때로는 이론의 영역에서 하향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상향적으로 풀어내지요.

이 단편선의 시작이 하비가 지리학에서의 마르크스주의적 사상과 방법론을 주창한 ‘지리학에서 혁명적 이론과 반혁명적 이론’(1장)인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이 단편이 지금 하비 사상체계의 기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말입니다. 이러한 하비의 입장은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리학’(2장), ‘자본주의적 도시 과정’(3장), ‘신제국주의’(9장), ‘금융위기의 도시적 근원’(10장)으로 점차 정립되어 갑니다.

하지만 기원이 되었던 첫 단편 자체의 부제가 ‘계도 형성의 문제’(1장)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이론화는 구체적인 지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롯져왔던 것 같습니다. ‘기념비와 신화: 싸끄레피르 대성당 건축’(4장), ‘투쟁적 특수주의와 지구적 야망’(8장)에서와 같이 말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든든한 이론적 플랫폼 위에서 기존의 영역을 넘어 문화, 정치, 환경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가 각각 ‘시공간 압축과 포스트모던 조건’(5장), ‘관리주의에서 기업주의로’(6장), 그리고 ‘환경의 본질’(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진화’(11장)는 조금은 예언자적인 스탠스에서 자본의 미래와 그 극복을 위한 전망을 늘어놓는 하비의 최근 논쟁작이죠.

저는 예전에 읽은 단편보다는 읽지 못했던 단편 위주로 한 번 빠르게 읽어보고, 다음에는 부록과 해설을 참조하면서 군데군데 들춰보고 뒤져보는 식으로 책을 읽게 되더군요. 그리고 나니 부록에는 다시 찾아보고 싶은 하비의 책 목록이 표시되어 남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어디까지 독서가 이어질 수 있을까와는 또 별도로 그 과정 자체가 나름 즐거운 기억으로 남더군요. 순차적으로 읽는 정통적인 독법이 주는 재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모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책들과 섞어가며 뒤져 읽는 독법이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돌아온 느낌이 없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미 지금까지 출간된 하비의 저작은 다 읽어보신, 매우 희귀한 독자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단편선을 읽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다 읽으셨는데 새로 나온 신작인 이 단편선을 읽지 않으신다니 말이 되지 않지요. 모두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읽는 것과는 별도로 구매는 일단 필수일

겁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이 단편선은 예전 단편을 묶었다고는 하나 이런 열혈독자 분들이라면 더 궁금해 하실 만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품고 있습니다. 일단 방대하다면 방대한 하비의 저작을 대표할 수 있는 11개의 단편을 작가가 직접 추렸다든 자체가 흥미로운 일입니다. 과연 하비는 하비의 저작 중 어떤 작품들을 가장 중요한 혹은 우수한 작품으로 생각할까를 알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니 말입니다. 다만 이런 독자들이 그런 선별에 동의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높은 확률로 동의하지 못하실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또 그것대로 독자의 권리이자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사실 목차만 확인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데, 단편마다 하비가 직접 쓴 논평이 붙어 있거든요. 어떤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맥락에서 각 단편이 쓰였는지,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소회나 권장하는 독해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작가의 담담한 이야기를 단편에 이어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읽었던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단편도 조금은 다른 각도로, 다른 깊이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몇 안 되는 열혈독자 중에 한국에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을 가장 열심히 소개해오시고, 이 책의 번역도 담당하신 최병두 교수님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비의 단편들을 죽 읽고 나서 만나는 교수님의 해제는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입견 일지도 모르겠지만 최병두 교수님이 보시는 하비의 세계는 하비가 말하는 하비의 세계와는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해제 말미에 『희망의 공간』(2009)의 내용이 단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짐짓 하비의 선구안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었습니다. 하비의 오랜 독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책에 대한 애증이 그야말로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지요. 저 대목하고 관련해서, 이 단편선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최근에 데이비

드 하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하비의 작업에 밝은 이들이 서울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컨퍼런스의 주제가 ‘희망의 도시’였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때의 작업은 다시 최근에 『희망의 도시』(2017)이라는 별도의 단편집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이 단편집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비의 이론이 소개되고 받아들여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죠. 이 책 역시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과 함께 뒤져가며 읽는 독법을 써보기에 적합한 단편집입니다.

사족일 수도 있는데,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과 『데이비드 하비』는 제가 데이비드 하비의 저작 중 처음으로 e북으로 본 저작들입니다. 원고청탁을 받고 책을 찾아보니 여전히 두꺼워서(!) 휴대성이 떨어지는 하비의 책을 들고 다니며 읽기 위한 고육책이었는데, 한참 읽다보니 21세기에 e북으로까지 이 양반의 새 책을 찾아 읽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럼에도 예전에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요즘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을 새로 하나 들씩 찾아내면서 조금은 놀랐었습니다.

오랫동안 읽히는 책들을 고전이라 하고, 고전은 결국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담고 있기에 고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아예 책 제목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이 단편집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적어도 이 단편집에 수록된 책 중 몇몇은 어렵지 않게 해당 분야에서는 고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는 그런 고전들을 만나게 해준,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책들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분기점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요.

정리하자면 이 책은 하비를 처음 읽으시는 독자에게도, 하비를 어느 정도 읽으신 독자에게도, 이미 하비의 열렬한 팬이 되신 독자에게도 일독을 권해드릴만한 범용적 단편집입니다. (물론 평균 이상의 집중력과 독서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비인걸요.) 이 기회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비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종이책이건 e북이건 상관없이, 진지하지만 즐겁게 말입니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하비. 2009. 『희망의 공간』. 한울.  
\_\_\_\_\_. 2017.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창비.  
서울연구원 엮음. 2017. 『희망의 도시』. 한울.  
최병두. 2016. 『데이비드 하비』. 커뮤니케이션북스.